

# 리빌딩 기조 속 2년 연속 통 큰 투자

### LG 트윈스, 작년 차우찬 95억원 → 올해 김현수 115억원

LG 트윈스가 리빌딩 기조에도 2년 연속 통 큰 투자로 FA(자유계약선수) 대어를 낚는데 성공했다.

LG는 19일 FA 김현수와 4년간 계약금 65억원, 연봉 50억원 등 총액 115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LG는 팀 체질 개선과 젊은 유망주를 육성하기 위해 오랜 기간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베테랑 선수들을 대거 정리했다.

최근 프랜차이즈 스타인 이병규를 비롯해 이진영, 정성훈, 손주인 등 베테랑이 은퇴하거나 팀을 떠났다.

2차 드래프트에서는 손주인, 이병규(등번호 7번), 유원상, 백창수 등 즉시 전력감도 없었다.

이 와중에 확실한 전력 보강 요인이 있을 경우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FA를 통해 차우찬을 영입하며 95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다.

그리고 1년 만에 이번에는 FA 계약 규모로 KBO리그 역대 두 번째로 큰 115억원을 들여 김현수를 데려오는데 성공했다.

차우찬과 김현수를 영입하면서 이전 소속팀에 내주거나 내주게 될 보상금과 보상 선수를 감안하면 과감한 투자가 아닐 수 없다.

차우찬은 삼성에서 LG로 동지를 옮긴 첫해 10승(7패)을 올렸다.



LG는 19일 FA 김현수와 4년간 계약금 65억원, 연봉 50억원 등 총액 115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평균자책점 3.43, 탈삼진 157개로 각 부문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승률이 따르지 않아 두 자리 승수를 채우는데 만족해야 했지만 몸값에 걸맞은 활약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차우찬 영입으로 LG는 올 시즌 팀 평균자책점 1위에 오르는 등 영입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이번에는 김현수가 비통을 이어 받을 차례다.

김현수가 3년 또는 4년 타순에 배치

되며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타선에서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외야 라인업의 확실한 한 자리를 책임지면서 다른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전력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리빌딩 기조 속에서도 2년 연속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은 LG가 내년 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이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뉴시스

## 축구팬이 뽑은 '올해의 골' 이승우 아르헨티나 50여m 돌파 골

축구 팬들이 선정한 2017년 올해의 골은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아르헨티나전에서 나온 이승우(베로나)의 골이었다.

대한축구협회는 올해 열린 각급 대표팀 경기를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열흘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팬 투표를 벌인 결과, 이승우가 아르헨티나와의 U-20 월드컵에서 터뜨린 단독 돌파에 이은 골이 올해의 골에 선정됐다고 19일 전했다.

이승우의 아르헨티나전 골은 총 투표 수 1만9886표중 가장 많은 4705표(23.7%)를 얻었다.

지난 5월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이 경기에서 이승우는 하프라인 서부터 상대 수비를 제치고 50여m를 질주한 후, 왼발 슛으로 골을 터뜨렸다.

폭풍 같은 돌파와 간결한 마무리가 인상적이었다.

올해의 골 2위도 이승우다.



3월 천안에서 열린 잠비아와의 U-20 대표팀 친선경기에서 골키퍼를 넘기는 감각적인 침습을 선보였다. 4103표를 획득했다.

팬들이 뽑은 '올해의 경기'는 지난달 10일 수원에서 열린 남자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콜롬비아전이 선정됐다.

콜롬비아전은 총 2만293표 중 7250표(38%)를 얻었다.

에이스 손흥민(보트넘)이 두 골을 넣으며 2-1로 승리한 경기다.

호쾌한 공격축구를 선보이며 침체됐

던 대표팀의 분위기 반전을 이끌었다. U-20 월드컵 조별리그 아르헨티나전이 5714표(28.4%)로 2위, 가나전이 2715표(13.5%)로 뒤를 이었다.

KFA 팬투표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연말에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올해의 골'은 2002 한일월드컵 포르투갈전에서 박지성이 터뜨린 골을 시작으로 2004년 이동국(전북)의 독일전 발리슛, 2012년 박주영(서울)의 런던올림픽 일본전 결승골 등이 선정됐다.

손흥민(보트넘)은 2015년 아시안컵 독일전 발리슛, 2016년 리우올림픽 독일전 골로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한편 투표 일정상 지난 16일 끝난 동아시아연맹(EAFF) E-1 풋볼 챔피언십은 제외됐다.

후보에 포함됐다면 일본전에서 나온 정우영(충청)의 무회전 프리킥도 유력한 후보로 손색이 없다.

/뉴시스

##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국내 유일 세계 100대 코스 선정

남해에 위치한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이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세계 100대 골프 코스에 선정됐다.

19일 영국의 코스 평가 사이트인 톱100골프코스가 발표한 '2018 세계 100대 골프 코스'에 따르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은 2016년부터 한 계단 상승한 90위에 올랐다.

세계 100대 코스는 전 세계 골프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골프장 정보 사이트로 '골프 코스의 컨슈머 리포트'로 불린다. 톱100골프코스(top100golfcourse.com) 사이트에서 골프 여행자들이 직접 참여해 순위를 결정한다.

사우스케이프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세계 100대 코스에 선정됐을 뿐 아니라 '한국 톱30 코스'에서도 연속해서 1위를 차지하며 국내 최고의 골프 코스라는 타이틀을 지켰다.

사우스케이프는 세계적인 코스 전문가 데이빗 데이비스가 미국의 페블비치와 비교하며 '강화된 페블



비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모던 링크스의 대가인 카일 필립스가 설계를 주도했다.

남해 바다의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을 고스란히 살려 설계한 18홀의 하이엔드 퍼블릭 골프장이다.

16개 홀에서 시원한 바다를 바라보며 플레이를 즐길 수 있고 바다를 넘어 티샷을 해야 하는 6개의 홀 등 다이내믹한 코스 구성이 특징이다.

사우스케이프는 부대시설도 자랑거리다.

클럽하우스와 럭셔리 호텔, 최고급 프라이빗 빌라를 비롯해 피트니스 센터, 스파, 아날로그 음악당, 와인 바, 인파티 풀 등은 아름다운 조형미를 보여준다.

한편, 세계 1위는 지난해에 이어 미국 페블비치 연안에 위치한 사이러스포인트가 차지했다.

내년 US오픈 개최지로 뉴욕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시네콰일스가 2위, 뉴저지 파인블록스는 3위에 위치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고베의 히로노 골프장을 비롯한 4곳이, 중국은 하이난의 상링베이 1곳만이 100위에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

## 프로축구연맹, 박주영·최철순 등 프로축구 FA 대상선수 공시

박주영(서울), 최철순(전북) 등 전전직 국가대표 대어들이 자유계약(FA) 시장에 나왔다.

프로축구연맹은 19일 박주영, 최철순, 김호준(제주), 양상민(수원), 김치곤(울산) 등 2018년도 FA 자격 취득 선수 총 192명을 공시했다.

올해 말일로 계약이 끝나는 205명 가운데 소속팀 경기에 50% 미만 출전해 자격이 되지 않은 13명은 제외된 인원이다.

2013년 신설된 보상금 제도 대상 선수는 총 49명이다.

보상금은 기본급의 100%, 최대 3억원이다. 2005년 이후 K리그에 입단한 만 32세 이하, 또 원소속팀 계약 종료

직전 년도 두 시즌 연속으로 등록된 선수기에 해당된다.

클래스에서는 박주영과 최철순, 임종은(전북), 이용래(수원), 한상운(울산), 심동운(포항) 등이 보상금이 있는 FA다.

김호준을 비롯해 양상민, 김치곤(울산), 김치우(서울), 오승범(강원), 황지우(포항), 현영민(전남) 등은 연령 초과로 보상금 없이 이적이 가능하다.

/뉴시스

## 한화, 제라드 호잉 70만 달러 계약... 외인 구성 완료

한화 이글스가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는 제라드 호잉(28·미국)을 영입하며 내년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완료했다.

한화는 19일 "미국 출신의 호잉과 계약금 30만 달러, 연봉 40만 달러 등 총 70만 달러(약 7억6000만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호잉은 지난 2010년 텍사스 레인저스에 10라운드 지명으로 입단, 2016년 5월 23일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다.

메이저리그 통산 74경기에 출장, 타율 0.220(118타수 26안타) 1홈런 12타

점 4도루 OPS(출루율+장타율) 0.550을 기록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통산 85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60(3218타수 838안타) 111홈런 434타점 128도루 OPS 0.764의 성적을 거뒀다.

호잉은 중견수 포지션은 물론 코너 외야 수비까지 가능한 외야수다.

빠른 발과 탁월한 타구관단으로 넓은 수비범위를 자랑한다.

타석에서는 2루타 생산 능력을 갖춘 우투좌타의 중장거리 타자로 빠른 주력과 우수한 베이스러닝 능력까지 갖

추고 있다는 평이다.

한화는 호잉의 영입으로 투수 커버스 샘슨, 제이슨 윌러와 함께 2018시즌을 함께할 외국인 영입을 모두 마쳤다.

이들 세 선수는 모두 내년 스프링캠프에 합류해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한화 관계자는 "호잉을 비롯한 젊은 외국인 선수들이 내년도 선수단 전체에 활력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